

이긴자 일대기 [23]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일곱째 천사요 일곱째 인을 때는 구세주입니다. 또 한 구세주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나’라고 했고 이어서 54절에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사람의 마음이 영(靈)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으며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영이요, ‘나’라는 의식이 혼(魂)이라는 것을 알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옛날에 광명 전도관에 나오던 종열이 엄마가 어찌다가 미치게 되었는데 그 젊은 여자의 정신병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사 신앙촌 근처 광명리(지금의 광명시)에 종열이 엄마라는 젊은 아주머니가 정신이상이가 생겨, 일곱째 천사는 전도관 신앙촌 청년들하고 같이 정신병을 고치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뺨 둘러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보는데 이슬성신의 은혜가 뽀얗게 눈에 보일 정도로 강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친 종열이 엄마가 갑자기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려 하면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모님께서 축복하신 생수를 먹이려고 하면 “피! 피!”하고 소릴 지르며 질겁하고 먹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보고 “애여! 이 애비가 목이 타니 물 좀 펴와라.” 하며 행동까지도 꼭 돌아가신 시아버지 행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아버지의 영이 들어오니까 음성도 시아버지 음성이 나오는데, 그 남편이 아버지 음성을 듣고 짹짹 못하고 물을 떠주며 순

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꿉장난 하자며 야기 행세를 하는 등 여러 사람들의 행세를 순식간에 바꾸어가며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유심히 관찰한 일곱째 천사는 영의 흐름을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피의 쿠데타, 즉 영의 쿠데타가 일어남으로 미친 사람이 이랬다저랬다 함

사람 각자의 몸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조상들의 영이 들어 있는데 ‘나’라는 주체의식의 영이 왕으로 군림하여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주체의식이 간혹 어려운 일을 당해 고민 속에 깊이 빠졌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는 ‘나’라는 주체의식의 영이 왕의 자리인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영에게 주체의식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속의 조상들의 무수한 영들 중에서 다음으로 강한 영이 왕의 위치에 와서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의 위치에 앉게 된 영의 사람이 그 사람의 행세를 하다가 다시 또 바뀌어 다른 조상의 영이 앉고 하는데 이때 피의 쿠데타, 즉 영의 쿠데타가 일어남으로 미친 사람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바뀐 상태에서는 밥을 세 그릇 네 그릇을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데 그것을 보아 밥을 많이 먹고 고 해서 배탈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이 더욱 증명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며칠씩 굶어도 이상이 없으며, 타이르고 친절하게 하는 것보다 야단을 치고 고통을 가하게 되면 현재 점령하고 있는 영이 하야(下野)하여 영이 바뀌는 것을 보았으며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의 마음 상태까지 알아맞히며, 더구나 그 사람에게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듯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이상에 대한 치유는 현대의학이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일곱째 천사는 교인들과 더불어 예배를 보고 나서 종열이 엄마에게 축복한 생수를 먹으라 하니까, “어어! 피를 어떻게 먹느냐? 이 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먹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수를 보고 피라고 하면서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죽는다는 것으로 즉각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받은 생수에는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는 종열이 엄마를 눕혀놓고 입 양쪽을 속 눌러 입이 벌어지게 하여 그 속에 생수를 따라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먹이고 다시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나니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자기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왕의 위치에 있는 다른 영이 왕의 위치를 물러날 때 영과 영이 결사적으로 싸우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정신이상에 대한 치유는 현대의학이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며 100%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곱째 천사는 오래전부터 미친 사람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십대 때부터 미친 사람을 고쳤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하면 미친 사람은 그 사람이 잘 가던 장소, 놀러가던 장소, 또 그 사람과 가장 친했던 사람을 자주 접촉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늘 잘 가던 장소, 공원이면 공원으로 매일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점점 그 밀려나간 ‘나’라는 의식의 혼이 강해지기 시작하다가 급기야 현재 그 밀고 들어온 그 시아버지의 영을 밀어내고 그 옛날의 혼이 되는 ‘나’라는 의식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 정신이상병이 나아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째 천사는 미친 사람을 많이 고칠 수 있었습니다. 전도관에서 많은 미친 사람들을 일곱째 천사가 늘 다니면서 고치게 되니까, 미친 사람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미친 사람만 생기면 일곱째 천사를 불러서 고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의 과거사를 들려줌

정신과 의사들이 미친병을 고칠 때 주로 미친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미친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좋아했으며 누구를 좋아하고 어디서 놀기를 좋아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여 과거사를 자주 들려줌으로써 제 정신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런 치유법은 단지 통계에 의거하여 의료계에서 행해지고 있을 뿐인지 근본적으로 정신병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는 영(靈)의 세계, 신(神)의 세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동원하여 정신병자가 미치게 되는 원인과 정신병자가 치유되기까지의 근본 이치를 정확히 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이 미치게 될 때에는 ‘나’라는 의식이 힘이 없고 약해져서 밀려나갔기 때문에 그 틈을 타고 죽은 사람의 강한 영이 밀고 들어와서 ‘나’라는 의식의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죽은 아버지 노릇을 하거나 죽은 조상의 노릇을 할 때 비로소 미친 사람이 되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곱째 천사는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전문의조차 알지 못하는 높은 층의 정신과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 그 사람의 과거사를 들려주게 되면, 그 미친 사람이 과거사를 들음으로써 기억을 되살리려는 피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의 작용은 생각에 의해서 피가 변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피가 변한다는 것은 영이 바뀐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치로 미친 사람이 본래의 자신의 영으로 바뀔 때 제정신이 들어와 미친병이 낫는 것입니다.

또 일곱째 천사는 일찍이 피가 마음이요, 피가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가리켜 영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곧 죽은 사람의 마음’이요, 죽은 자의 마음이 죽은 자의 피더라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

다. 사람이 죽는 것은 피가 썩어서 죽는 것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피 자체가 변질되고 썩어서 죽는 것이지 피가 깨끗하게 살아 있으면 사람이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속에 죽은 조상의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있어

다시 말해서 피라고 하는 것이 영인데, 죽은 사람의 영이 살아있는 자식 속에 있으며 자식이 없는 사람은 형제들 속이나 친척들 속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과 형제 그리고 친척들은 모두 같은 조상의 피를 나눈 혈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시점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 고조부... 이런 식으로 쭉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놀랍게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 속에 죽은 조상들의 피가 뭉땅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소급하여 올라가면 인류의 시조 아담 해와의 피와 하나님의 영까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속에 죽은 조상의 귀신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인간 자신이 바로 귀신단지인지도 모르고 목전의 현실에만 급급하여 잘났다고 으스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를 무덤에 매장하고 해서 그 죽은 자의 영이 땅속에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구름 위에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라, 그 죽은 자의 영은 현재 살아있는 후손들의 핏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죽은 사람의 내세가 곧 산 사람의 현재가 되는 셈입니다. (하단에 계속)

아무리 먼 곳에서 무당이 굿을 해도 이 사람이 가지 않고 막는다

한편 일곱째 천사가 익산군 금마재 건 중고등학교에서 군인장교의 신분으로 민간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도 희귀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규탁이라는 학생의 집에 우환이 있어 동네에 유명한 무당들을 불러다가 굿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일곱째 천사는 “그 굿을 몇 시에 하나?”고 물으니 저녁시간에 한다며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최규탁 학생에게 “그 굿이 안될 테니 두고 봐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녁시간이 되자 무당들이 도착하여 웃을 갈아입고 명석을 깔고 물을 떠 놓고 대나무도 갖다 놓고 분주히 준비를 하더니 드디어 정좌(正坐)를 하고 정성을 드리고 북을 치면서 일정한 리듬에 맞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십 분, 한 시간, 두 시간이 가도 무당이 움직이지 못하고 주문 외우는 사람만 열심히 땀을 흘려가며 북을 치며 주문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주위에서 구경 온 사람들도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삼십 분 안에 신이 내려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 등 초능력을 보이는데 오늘은 무당이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 모양 그대로 앉아 있다가 몇 시간이 지난 다음 도저히 굿이 안 내리니까 자신의 몸에 칼질을 하면서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안 되니 끝내 포기하고 일어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저 쪽에

은혜자를 만나면 기쁨이 오고 몸이 가볍고 상쾌해진다

있는 전도관에 다니는 군인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자신의 집 안 마당에서 자세히 지켜본 최규탁 학생이 참으로 신기하게 여겨 다음 날 학교에 와서 그대로 군인 선생님께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독소물질 또는 생명 물질이 나온다

영(靈)의 세계에 대한 깊은한 곳까지 파헤치고 영의 흐름을 알게 된 일곱째 천사는 그 입에서 새로운 참단 학문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 신학문(新學問)의 대부분이 어느 누구도 논하지 못했던 생명에 관한 최첨단 과학인 것입니다. 예컨대 병원에서는 중환자의 입원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면회를 금지하는데,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통계적으로 면회를 시킨 중환자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빨리 죽는가에 대한 근본원인을 의사들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피가 영인데 사람의 몸이 피로써 만들어졌다면 사람의 몸이 곧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또 마귀의 영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마귀영이 중환자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으면서 힘이 모자라서 빨리 죽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면 회하면 마귀영이 자주 지원해주는 격이 되어 중환자를 짓누르고 있는 마귀영이 힘을 얻어 마침내 중환자의 목을 졸라 죽이는 것입니다.

은혜자를 만나면 기쁨이 오고 몸이 가볍고 상쾌해진다

죄인의 몸에서는 죄(罪)의 독소물질이 쏟아져 나오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거워지지만, 반대로 은혜자를 만나면 기쁨이 오고 몸이 가볍고 상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일곱째 천사가 환자를 면회하면, 그 환자가 일곱째 천사의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강한 생명의 물질을 공급받아 생기를 되찾고 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독소물질을 뿜어낼 수 있고 생명의 물질을 뿜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바라보는 원리가 작용하며 그 바라보는 대상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1983년도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했을 때에 삼십십년 만에 만나는 감격의 순간을 화면으로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바라봄으로써, 생각과 마음, 영이 움직이고, 생각과 마음과 영이 움직이면 피가 변하고, 피가 변하면 몸이 변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분을 바라보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 오게 된다는 원리 터득

그러므로 태초의 아담과 해와에게 모방력이 있는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여 나타남으로써 그것을 바라본 아담과 해와인 하나님의 영

이 마귀의 영에게 점령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 해와의 하나님이 독소물질을 내뿜는 죄인으로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 이와 반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즉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영이 담긴 분을 바라보면 하나님 영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어 마귀의 영이 지게 되는 논리는 지극히 정확한 논리인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는 이십대 후반에 영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영모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일곱째 천사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영모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 오시게 된다는 원리를 터득한 것입니다. 이후로 일곱째 천사는 영모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계신 분인 것을 깨닫고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고, 생명을 바쳐 순종하는 생활을 일 년, 이 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더구나 마귀라 하여 발붙일 곳이 없는 가운데서도 개의치 않고 그 모진 핍박과 조롱을 견뎌왔던고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 조희성의 마귀 영을 죽이고 좌정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바라보는 생활을 하게 됨으로 이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서 보이고 저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어 보이게 되니,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마음가짐과 행실이 이루어져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썩은 피를 맑혀주시는 이긴자 하나님!

The Purifier of the Blood!

이긴자 하나님은 피를 맑혀주는 분입니다.

→ The Victor Christ is the One who purifies the blood of humankind.

이긴자 하나님의 눈과 입에서는 이슬이 쏟아져 나옵니다.

→ From the Victor Christ's eyes and mouth, divine dew flows out.

이 이슬이 중생들의 몸속에서 흐르고 있는 썩은 피를 제거해주고 맑혀줍니다.

→ This sacred dew cleanses and removes the decayed blood circulating within the human body.

피를 맑혀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를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 By purifying the blood, it transforms the mortal body into one that does not die.

그런데 이 이슬은 마음 문을 연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However, this dew can be received only by those who open the door of their hearts.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죽을 몸이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조금씩 화하게 됩니다.

→ Through this grace, the once-mortal body gradually changes into an immortal one.

그래서 이긴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이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 Therefore, meeting the Victor Christ is the greatest glory and the supreme blessing one can ever receive.*